

나나尹이나...초박빙 대선 '샤이표'가 승패 가른다

ARS·전화면접 여론 들쭉날쭉 여야 '숨은 표심' 잡기 전력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관심사 부동층이 더 많아...공략 집중

3·9 대선이 초박빙으로 진행되면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표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샤이 표심'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들의 표심 향방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재명'으로 분류되면서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여부도 대선 막판 관심사다. 2일 정가에 따르면 숨은 표심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최근 조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가 대표적이다. KSOI가 지난달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5%이후는 43.2%를 기록해 두 후보 간 격차는 1.8%포인트에 불과했다.

KSOI가 같은 기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 후보가 43.8%, 윤 후보는 36.1%를 기록했

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7%포인트로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이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같은 기관이 같은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도 조사 방식에 따라 '널뛰기'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점이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 표심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통상 조사원이 전화를 거는 전화면접 조사는 ARS 조사에 비해 거절 사례가 적기 때문에 부동층(지지후보 없음+모름)까지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정권교체 찬성 여론에 여전히 못 미치는 점도

'샤이 유권자'가 존재하는 근거로 꼽힌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으로 치러지는 탓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의사 표명을 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반면, 샤이 표심은 열세에 처한 후보가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는 표본 추출 문제로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숨은 표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숨은 표'가 선거 결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가 첫손에 꼽힌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후 후보가 한 후보를 10%포인트가량 앞

선다는 결과들이 많았으나 막상 투표장을 열어나 피를 말리는 접전이 펼쳐졌다.

반대로 '샤이 표심'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선거도 있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대표가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며 '샤이 표심' 결집을 강조했으나 참패하기도 했다.

이윤 후보 측은 몰다 '숨은 표심'보다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측 모두 부동층 공략에 더 주력하려는 모습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송영길 대표, 나주시 지원 유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나주 혁신도시 KDN앞 거리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최원배 기자choi@kwangju.co.kr

안 '단일화 프레임' 선긋고 흠결없는 후보 차별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3·9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일 '단일화 프레임'을 틀어내고 거대 양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내세워 완주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본인을 물론 가족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단일화 이슈는 사실상 소멸된 상태다. 선제적으로 윤 후보에 제안했던 야권 후보 단일화는 협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완주로 기운 분위기가.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일화는 사실상 종결된 것"이라며 "더이상의 바람직(상황식) 방식의 협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후보가 지난 1일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 논의하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열린 답변을 내놓은 만큼 후보 간 결단에 따라 단일화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남은 일주일 동선은 그동안 안 후보의 발걸음이 닿지 않았던 강원·충청 등 지역 일정과 수도권에 집

중될 방침이다.

주 공략 대상은 20·30세대와 중도층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 후보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부동층 표심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유세 메시지에서 자진만인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뤄낼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지난달 27일 광주 유세에서 "지금도 시대정신이 국민 통합이라 믿는다"며 "저는 그 일을 맡고 싶다. 어쩌면 제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나온 절박한 이유"라고 지지 호소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세대, 남녀, 지역간 양극화와 갈라치기가 심해졌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대통합을 이루려면 대통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는 안 후보와 함께 유세장에 올라 마이크를 쥔 예정이다. '가족 리스크 없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국힘, 현 정부·李 후보 겨냥 파상 공세 이어가

김기현 "문 정부 총체적 실패"...李 성남시장·경기지사때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확대대선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중단 조치를 두고 "자영업자 고통을 던지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선 일주일 앞두고 일시 중단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대중(DJ)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표현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맹폭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자신들만 절대

선으로 우기면서 진영논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입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계속 고집을 부리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국민은 더더욱 정권교체에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난의 화살은 이재명 후보로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은 모두 "총체적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선거 때까지 어떤 황당한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후보가 자기 부정하며 오락가락 행보하는 이유는 모르지 선거, 표에만 있는 것이진정성 찾아볼 수 없다"고 강공을 폈다.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민주당은 5년간

법사위 '尹부동시·李수사자료' 동시 열람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과거 범죄수사 경력 자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시(不問視) 관련 자료를 동시에 확인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장재원 의원,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자료 열람을 위해 국회에서 만났으나 서류 부투도 열여보지 못한 채 2시간 30분 만에 발걸음을 돌렸다.

박법제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 관련 자료만 가져온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 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이날까지 받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인용 및 재입영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며 범죄수사 경력 자료 제출 요구로 맞선 끝에 결국 두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해산 및 채권신고(1차)

본 회사는 2022년 3월 3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 하였습니다.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3일 정건건설 주식회사 여수시 충민공인길 45 (덕충동) 청산인 도석호

분할합병공고

(원산지 이외의 주주제출공고)

주식회사 나눔이앤에이(이하 '갑'이라 한다)의 일부(정보통신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진우정보(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합병하고자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 합병보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 정보통신공사사업(등록번호: 제2020305호)
- 분할 합병 예정일: 2022년 04월 04일
-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1) 기 한: 2022년 03월 03일 ~ 2022년 04월 01일 2) 제출처: 양도, 양수 각 법인

2022년 3월 3일 '갑' (양도인) 주식회사 나눔이앤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대로 706, 지하층 101호(소운동) 대표이사 이형택 '을' (양수인) 주식회사 진우정보 광주광역시 서구 해동로 53, 309 206호 (매월동·광주신안유채유류센터) 대표이사 박예진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박경민(610915-XXXXXX00)
- 최종주소: 광주 서구 화정로 87-1, 303동 305호 (쌍촌동, 쌍촌시영아파트)

피상속인 방 박경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광역시 2022년 단167호로 신청하여 2022년 2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공고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3일

- 상속인: 1. 박정혜(450906-XXXXXX00) 제주시 진남로 6길 32 302호 (화북동, 영진주택)
- 2. 박정용(611022-XXXXXX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장동로 50번길 5, 304호(동국제비리차)
- 3. 박순희(580320-XXXXXX00) 제주시 이연로 534-16, 106동 202호 (아라리동, 명신빌딩)

· 신고기간: 2022. 3. 3 ~ 2022. 5. 13.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박정혜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토리얼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지역내	· 동 광 266-1920 · 문 266-1960 · 북 광 525-3761 · 신 222-8171 · 남 신 571-7858 · 오 266-7801 · 용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명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651-1833 · 북 신 673-6836 · 송 675-6605 · 진 671-7276
서 구	· 광 382-5788 · 심 372-2352 · 서광 369-1625 · 문 376-7153 · 서 명 376-6511 · 용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952-1687 · 화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